

# 전자화폐 자판기 시대 열린다

현금이 없어도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자판기 이용에 있어 가장 번거로운 절차인 현금사용 대신, 카드만 살짝 단말기에 옮기기만 해도 원하는 물품을 뽑을 수 있는 전자화폐 자판기 이용 시스템은 가히 결제수단의 혁명이라 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금호에서는 무현금 사회로 진일보를 내딛는 전자화폐 시장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하나로카드, 마이비카드, 몬덱스카드를 중심으로 본격화될 전자화폐 자판기 시장 가능성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 발 빨라지는 전자화폐 시대의 도래

K대 3학년 달자양은 현금을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기로 유명하다. 그녀의 지갑을 보면 현금은 거의 없고 카드만이 뽁뽁하다. 이제 웬지 현금을 내드는 것이 촌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무현금결제를 선호하는 신세대 달자양. 그녀의 하루를 살펴보자.

그녀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야 한다. 그녀는 이 두 교통 수단을 이용하면서 교통카드가 든 지갑만 살짝 카드리더기에 갖다댄다. 학교에 도착 후 곧장 도서관행. 며칠 후면 시험이라 도서관에서 진드근히 공부를 하려 하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한 남자친구랑 뭐할까, 널모래 엄마 생일 때는 뭘 선물할까 하며 고민 고민...

이래저래 공부는 안되고, 달자는 근처에서 공부하는 과친구를 불러내 자판기 앞에 섰다. 얼마전 발급한 모社 전자화폐 카드를 이용, 폼나게 친구 음료까지 한번 샀다.

이래저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점심시간. 파친구 몇 명과 학교앞 스파게티전문점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다. 식사후 친구들은 각자 더치페이하기 위해 돈을 걷고 있으나 달자는 마침 이 음식점이 자신이 가진 전자화폐 가맹점이라 제일 먼저 계산을 마쳤다.



나른한 오후. 달자는 학교내 인터넷을 접속, 쇼핑물에 접속해 어머니 생일선물로 예쁜 핸드백을 골랐다. 컴퓨터에 연결된 단말기에 카드를 넣으면 금액은 자동 결제된다.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니 보안 걱정 같은 건 아예 할 필요도 없다. 같은 방식으로 유료 게임 사이트에 들어가 게임도 30분 즐겼다.

남자친구를 만나는 신나는 저녁시간. 두사람은 “카드를 갖고 튀어라”는 코메디영화를 보러 영화관을 찾았다. 이 역시도 전자화폐를 통해 결제를 하고 배꼽 잡고 웃으며 영화를 보고 나오니 시간이 어언 11시.

자신을 배웅하는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택시를 탔다. 4,600원의 택시비를 카드로 가볍게 결제하고 기분 좋게 귀가. 오늘 역시도 현금 한푼 안 쓰고 카드로 하루를 산 날이었다.

전자화폐시대가 본격 개막되면 ‘달자의 하루’ 같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선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활발한 전자화폐 도입 추세에 미루어 볼 때 이같은 시대의 본격 도래를 이미 목전에 두고 있다.

그만큼 최근의 전자화폐 도입 추세는 발빨라지고 있다. 지난 5월 몬텍스코리아가 국민은행과 손잡고 20만장 발급을 목표로 ‘몬텍스 프리패스’ 카드를 출시했는가 하면 비자캐시는 올 하반기 상용화를 위해 지난 5월 24일부터 주주사와 발급사 임직원 대상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미 부산시와 손잡고 부산지역에서 25만장의 전자화폐를 발급한 마이비는 최근 경상남도 전자화폐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11월부터는 창원, 마산, 진해 지역에서도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질세라 A-캐시는 6월 시작을 선언했다. 회원 은행 임직원 중심으로 1만여매를 발행하며 지난해 7월 시범서비스에 들어간 K-캐시도 조만간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교통카드의 대명사 하나로카드는 이미 350만장이 발급되어 주로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교통카드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전자화폐란 무엇인가?

전자화폐는 은행계좌와 반드시 연계되지 않고서도 거래대금 지급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돈을 전자적으로 저장한 선불 지급수단이다

전자화폐는 보안성, 익명성(정보유출 위험성), 편리성(범용성), 부가기능 등을 뛰어 나야 한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형보다는 IC형이 보안성, 익명성이 뛰어나고 폐쇄형보다는 개방형이 보다 편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세계적인 추세는 IC형대의 개방형 전자화폐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칩에 돈을 충전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액수의 돈이 전자화폐 연결 계좌에 들어 있어야 한다. 충전된 돈을 다 쓰면 재충전할 수 있다. 현행법상 2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화폐 활성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정부는 지난 4월 전자화폐 충전 한도를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자화폐는 또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뉘어진다. 개방형은 전자화폐간 이체가 가능한 카드, 엄마가 딸에게 용

돈을 줄 때 예전처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단말기를 통해 엄마 전자화폐 카드에서 딸 전자화폐 카드에 용돈 액수만큼을 이체시켜 주는 식이다. 폐쇄형은 이체 기능이 없이 지불 기능만 가지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올해 말부터는 상품권과 같은 기능의 판촉, 선물용 전자화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자화폐의 장점**

현금과 비교되는 전자화폐의 장점은 우선, 일일이 잔돈을 가지고 다니거나 거슬러 주는 번거로움이 전혀 필요 없다.

10원 이하의 돈도 거래가 가능하며, 제품 가격을 599원에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여기에 현금처럼 완벽한 익명성이 보장된다.

또 한가지 장점은 온라인(전자상거래)이나 오프라인(실물상거래)상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의 셋톱박스, KIOSK 형태단말기, 멀티미디어폰, 선불형 모바일 폰 등을 통해 활용범위가 넓어졌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신용카드와 전자화폐의 차이점은 세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 전자화폐는 1만원부터 3만원 미만의 소액결제 시장이고 신용카드는 그 이상의 결제 시장이라는 점.

둘째, 전자화폐는 정산, 승인의 절차가 없고 신용카드는 정산 및 승인절차를 거친다.

셋째, 전자화폐는 선불방식이며 신용카드는 후불방식이다.

**전자화폐 시장 전망**

전세계 현금거래의 약 20% 정도가 10달러 이하의 소액결제로 알려져 있다. 이를 국내에 적용시키면 올해 추정 소비자출규모 300조원 중 약 60조원 정도가 1000원 내외의 소액결제라는 계산이 나온다. 전자화폐 관련업체들은 2005년까지 전자화폐가 현금시장의 5~20%를 차

지하게 될 것으로 내다본다. 단순 계산으로 3~10조원대 규모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미 훌륭한 지불 수단으로 자리를 잡은 신용카드라는 진입장벽이다. 신용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현금 외에 신용카드를 대체 할 만한 지불 수단이 따로 없었다. 때문에 신용카드의 편리성이 집중 부각돼 지금처럼 널리 퍼지게 된것. 이에 비해 전자화폐는 신용카드를 넘어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3만원 미만의 소액결제가 주축인 전자화폐의 주 이용처는 패스트푸드점 등 각종 프랜차이즈 업체, 편의점, 자판기, 택시, 서점, 주유소, 각종 상점 등등. 전자화폐의 이상처럼 지폐와 동전을 없애려면 이 모든 곳에 단말기가 깔려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어디서는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고 어디서는 안된다면 안될 경우를 대비해 늘 현금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굳이 전자화폐를 소지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나 수백만 상점에 단말기를 깔려면 엄청난 액수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 비용을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 업체들이 자비로 산다면야 문제될 게 없겠지만, 현재 상황은 서비스와 단말기 업체가 무료로 깔아 주는 식이다.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에서 몇 안되는 전자화폐 업체들이 무한대로 단말기를 제공할 수는 없는 일. 따라서 현재 몬텍스가 통용되는 코엑스몰·제주도 관광지·정동 스타식스 극장·할리스 커피전문점, K-캐시를 이용할 수 있는 역삼동 일대, 마이비가 들어가 있는 해운대 관광 특구 등을 제외하고 일반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별로 없다.

그나마 최근 비자카드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롯데리아 전매장과 세븐일레븐 본점으로 범위를 넓혔다.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인터파크, 삼성물, 롯데닷컴 등에서 전자화폐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전자

화폐를 사용하려면 1만원 가량하는 개인용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충전이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현재 몇군데 은행에 전자화폐 입출금기가 설치돼 있는 정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충전하려면 역시 개인용 단말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격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 확산력은 엄청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결제 수단으로서 전자화폐만큼 편리한 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 전자화폐, 왜 자판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전자화폐와 자판기 분야 도입이 최근 들어 부쩍 빨라지는 것은 자판기가 소액결제 시장에 있어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료자판기위주의 국내 시장은 그 결제단가가 1000원내외가 대부분이어서 소액결제라는 특성에 딱 맞아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자판기만큼 대중성을 갖춘 유통기기도 없다. 자판기를 독립 점포로 본다면 전국 40만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개체수를 압도할 유통수단이란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에 기술적인 접목 효과 측면도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다. 무인유통 수단으로서 첨단 이미지가 강한 자판기에 편리성을 배가시키는 전자화폐 결제시스템은 상호 시너지 효과가 크다. 자판기 입장에서는 매상증가, 소비자 편리, 환전의 불편함 해소 효과를 기할 수 있어 좋고, 전자화폐 입장에서는 교통분야를 빼고는 자판기만큼 대중성이 큰 분야를 찾기 힘들다. 따라서 자판기를 통해 전자화폐 사용 편리성을 소비자에게 강력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속된 말로 '누이 좋고 매부도 좋은' 선택. 두 분야가 상호 접목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전자화폐 도입을 위한 적극성에 있어선 두 분야의 차이가 크다. 어떻게든 전자화폐의 사용분야와

이용율을 늘려 가야 하는 전자화폐사 입장에서는 자판기 분야로의 도입을 최대한 확대하려고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는 반면, 자판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운영업체의 의욕은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게 현상상황이다.

자판기 분야의 경우 전자화폐시스템이 기존 현금결제 시스템에 있어 옵션적 기능을 추가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사업의 전체적인 면을 좌지우지할 큰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 더욱이 새로운 전자화폐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게 제품 원가상승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꺼리는 측면도 적지 않다. 한마디로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개념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이렇다 보니 현재 전자화폐자판기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데 있어선 주관사가 그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특히나 전자화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리는 각사 입장에서는 자판기 분야의 시장선점 역시도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핵심사안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각사별 전자화폐 사업 진행현황과 자판기 분야로의 전개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 전자화폐 자판기 시대를 여는 카드들

#### 하나로 교통카드

하나로 교통카드는 단일 전자화폐 카드로는 가장 많은 보급이 이루어 카드이다. 하나로 카드는 부산이라는 지역적인 국지성은 있지만 이미 350만장이 보급되어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로 카드는 지하철, 버스, 택시, 주차장 및 무정차 톨게이트(Non Stop Toll Gate) 요금지불이 가능하며, 나아가 백화점 등에서의 물품구입은 물론 공중전화기의 사용도 가능한 다기능 만능카드이다. 또한 기존 마그네틱(Magnetic Stripe) 카드의 안정성, 보안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한 비접촉식(RF) IC카드로서, 카드 내부에 IC칩



과 무선안테나를 내장하여 카드와 리더기간 무선접속 방식으로 상호 DATA 교환을 통해 요금정산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미 범용적인 사용기반을 갖춘 탓에 현지점에 전자화폐자판기가 도입이 되면 가장 많은 이용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로 카드 정산 은행인 주택은행과 온라인 자판기 개발회사인 에어코텍에서는 지금까지 5대의 하나로카드결제 자판기를 설치했다.

이 자판기들은 롯데칠성 캔자판기들로 부산시청 1대, 경남정보대학 2대, 남포동 코오롱상가 2대 등이 설치되어 있고 운영은 천초벤딩에서 하고 있다.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설치된 하나로 카드 결제 자판기들은 전체 사용중 카드사용비율이 20%를 넘을 정도로 기대이상의 빠른 이용율 확대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하나로카드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하나로 카드 결제 시스템이 도입된 롯데칠성 자판기 설치를 크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전자, 캐리어·LG에도 하나로카드 사용이 가능한 자판기 제작을 협조 의뢰하고 향후 전개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자판기에 부착되는 하나로카드 단말기는 기본형이 25만원 수준, 제고 관리까지 가능한 무선 모델이 들어가면 42만원대로 알려 졌다. 에어코텍의 하나로 온라인자판기 @-net 시스템은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지불하는 시스템 이외에도 전자화폐 보충 및 보충 잔액 확인 등의 기능과 광고 및 숫자 입력이 가능한 TFT 터치 스크린을 장착하고 있다. 또한 자동판매기 운영상태와 자금정산(직접업무)를 자동화 할 수 있고, 자동판매기와 @-net시스템간에는 무선 통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다.

#### 【마이비 카드】

현재 전자화폐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도시는 부산이다. 하나로카드에 이어 다기능 멀티 카드 마이비카드마저 가세 부산을 전자화폐 선진도시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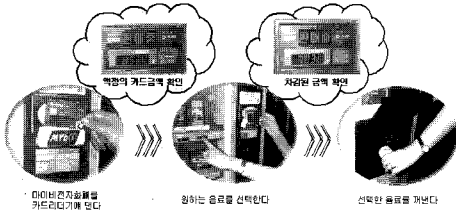
마이비사에서 진행하는 마이비카드는 부산은행, 마이크로스프트, 롯데,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조합, 드림라인 등을 주축으로 지금까지 약 25만장의 '디지털부산카드'를 발급했다.

마이비카드는 한 장의 카드로 교통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현금카드,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자동판매 인터 넷상 각종 유료 콘텐츠 대금지불 등 모든 대금결제를 한 장의 카드로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보충, 현금보충(유인보충상), 은행창구 보충 등 언제 어디서나 편리, 보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령층 제한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다.

마이비카드는 교통분야에 있어선 일반버스, 유료도로, 민자터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지하철까지 대상분야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카드 사용율이 크게

## 마이비전자화폐 자동판매기 이용절차



확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11월부터는 부산지역이외에도 울산, 경남지역의 대중교통 이용과 유통,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 마이비카드는 올해 안으로 125만장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이비카드 자판기는 6월말 기준으로 10대가 설치되어 있다. 10대 모두 캐리어·LG 콤비자판기로 관공소, 부산은행 지점 등이 주설치 로케이션. 8월 중순까지 대학로를 중심으로 20대의 제품을 추가 설치해 본격적인 마이비카드 자판기 시대를 열어 나갈 계획이다. 올 전체 전개 대수는 1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판기로의 기술상 접목은 그간 캐리어·LG와 충분한 기술협의를 진행, 제품의 부착 스페이스에 단말기를 장착만 하면 된다. 기본형 부착가격은 49만 5000원이고 별도로 특수형 모델 적용 무선망을 이용하면, 관리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다.

### 【몬덱스카드】

몬덱스코리아(대표 김근배)는 몬덱스 전자화폐를 전세계에 공급하는 몬덱스인터내셔널의 한국법인으로, 98

년 12월 마스터카드코리아, 국민은행, KIS정보통신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했다.

몬덱스카드는 이미 80여개 국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어 안정성이 입증된 상태라는 게 몬덱스코리아 측 설명.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27일 코엑스에서 사용 가능한 트레이드 패스를 발매해 최초로 상용화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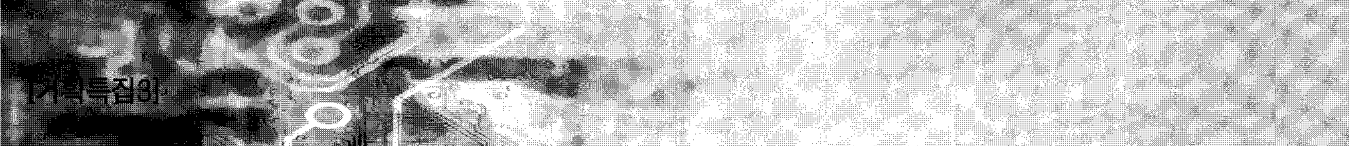
지난 5월 초에는 국민은행을 통해 국민은행 계좌, 국민카드와 연계된 '몬덱스 프리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프리패스 카드는 국민은행 계좌에서 언제든지 돈을 충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국민카드와 패스카드 기능이 첨가된다. 프리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인터파크, 삼성몰 등 30여개 인터넷 쇼핑몰 외에 서울 정동 스타식스 극장, 커피전문점 할리스, 코엑스몰, 제주도 관광단지, 경기도청 주변 등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는 5~25%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발급기준 연령은 신용카드(18살)보다 훨씬 낮은 12살. 전자화폐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전자화폐에 신용카드 기능을 추가하면 된다.

연말까지 5만 가맹점 가입과 300만 회원확보를 목표하고 있는 몬덱스코리아가 내세우는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운 호환성과 보안성. 마스터카드라는 후원자가 있는



COEX에 설치된 몬덱스 카드 이용 자판기들



몬덱스는 달러, 엔 등 5개 통화를 자유롭게 충전해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1차로 내년 월드컵 때 한국과 일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부여를 위해 몬덱스 코리아와 몬덱스저팬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전자화폐에서 전자화폐로 이체하는 기능도 5개 전자화폐 중 유일하다. 자녀 용돈을 아빠 전자화폐에서 자녀 전자화폐로 넣어 줄 수 있는 식이다.

몬덱스 코리아는 7월부터 서울 개인택시에서도 몬덱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현재 개인택시조합을 통해 월드콜 택시 1000대에 시스템을 부착 할 예정이다. 시간당 요금을 무는 PC방 이용자들이 유료 서비스 사용 액만큼 정확하게 요금을 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유니텔과 함께 개발한 몬덱스 코리아는 6월부터 PC방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벌일 계획도 갖고 있다. 몬덱스카드자판기는 현재 상용 서비스를 시행하는 COEX에 5대가 설치되어 있고 제주 도청, 제주마을금고에 3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제품 모두는 코카콜라 캔자판기.

몬덱스 코리아는 향후 자판기 분야의 도입을 크게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 하에 모듈개발이 끝날 예상시점인 7월말까지 경기도청에 15대의 몬덱스카드자판기를 설치한다. 15대 중에는 캔자판기 이외에도 커피, 담배자판기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현재 대대적인 가맹점 모집 예정인 PC방에도 몬덱스 카드 결제 시스템이 부착된 코카콜라 캔자판기를 임대 전개할 계획이다.

시스템 모듈 가격은 20만대로 책정할 계획이다.

### 향후 자판기 도입, 가능성 있는 전자화폐들

#### 【K-캐시】

K-캐시는 은행 연합한 토종 전자화폐 몬덱스와 비자캐시가 세계적인 카드사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K-캐시는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전국 27개 금융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전자화폐다.

K-캐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정보화사업 프로젝트 일환으로 탄생했다.

이전의 신용카드 사업처럼 호환이 안되는 데서 비롯되는 중복투자를 막아 보자며 시작부터 전 금융기관이 함께 하자는 취지 아래 시작했다. 따라서 발권 기관인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전면에 있으면서 20개 은행과 7개 카드사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K-캐시는 지난해 7월 서울 역삼동 일대와 춘천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후 올 1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 지난 4월 기준, 4500매가 발행된 K-캐시의 한달 이용건수는 5만5000건에 거래액수가 1억6000만원, 회원 금융사 임직원들이 열심히 사용하다 보니 실적은 다른 업체에 비해 좋은 편이다. 4500매 카드 중 4월 한달간 한번 이상 사용실적이 있는 카드 수가 4300매가 넘는 등 이용율이 높은데는 이런 배경이 자리한다.

국내 업체 중심이 된 K-캐시의 최대 장점은 국가 프로젝트라는 공신력과 국내시장 마케팅 능력이다. 금융결제원을 통한 전자화폐 공동망과 국가 정보원 기준에 맞춘 보안성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K-캐시 측 설명. 또 모든 은행과 카드사가 참여해 발급과 사용이 용이하다는 점은 마케팅에 큰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 정보화 사업인 만큼 국산칩을 사용해 로열티가 없다는 점도 K-캐시가 자랑하는 부분이다. K-캐시는 이런 공신력을 바탕으로 인천 국제공항 내에서 사용되는 전자 화폐 표준으로 채택됐다.

앞으로 인천 신공항 내 공항이용료와 공영주차장 이용료, 공항 내 식당과 선물용품 등 여타 가맹점에서도 K-캐시로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

#### 【비자캐시】

경쟁사 몬덱스 코리아의 5월 상용화 시작에 자극 받은

비자캐시코리아도 서둘러 시범서비스에 들어갔다.

서울·일산·분당 등 수도권 지역 롯데리아 전 매장, 세븐일레븐 본점, 롯데닷컴, 삼성물, 해피투바이 등의 가맹점이 대상. 이 기간동안 6000장의 전자화폐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외환카드, 외환은행, 주택은행, 하나은행 창구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조만간 신한은행, BC카드, 조흥은행, 한미은행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지는 비자캐시는 9월부터 본격적인 상용화에 도입한다.

주주사인 SK텔레콤은 비자캐시 상용화 시점에 맞춰 비자캐시 충전과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핸드셋을 시판할 계획.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을 이용해 비자캐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편리성을 극대화한다는 계산이다.

비자캐시코리아는 지난해 비자카드와 은행 등이 결성한 비자 컨소시엄이 45% 지분을 출자하고 SK텔레콤, 삼성물산, 롯데칠성등이 참여해 설립됐다.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주주구성이 탄탄한 만큼 이들과 협력을 통해 앞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비자캐시는 2002년 월드컵에 맞춰 외국환 전자화폐 서비스가 시작된다.

### 이제는 산업계가 적극성을 가질 때

국내 전자화폐의 도입은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판기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보다 자판기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유럽에 있어서도 모바일 결제 정도의 결제 시스템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지 우리처럼 전자화폐까지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전자화폐자판기가 제대로 장착이 된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문제는 과연 전자화폐자판기가 얼마만큼의 확산력을 보일 수 있느냐 하는 점. 현 시점에서 있어선 향후 그 확산력에 대해 전망을 내놓기

가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전자화폐자판기의 도입확산은 카드사의 도입의지만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판기산업을 포함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단 전자화폐사들이 도입확산을 진행하려는 강력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 주위의 전체적인 제반 여건 따라 주면 빠른 시간 내에도 다량 시스템 도입 전개가 가능하다. 그에 비해 자판기 산업계의 입장은 상당히 수동적인 게 사실이다. 앞서도 일부 언급했듯 산업계는 그다지 큰 의욕을 보이지 않고 카드메이커의 의지에 따라 부응하고 있는 정도이다.

제조분야에서 독자적인 투자를 한다거나 운영주입장에서는 시스템 비용을 지불하며 전개의사를 보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렇다보니 현재는 전자화폐사가 모듈 장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부분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런 상황이 변함이 없다면 전자화폐사의 의지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시스템 비용을 전자화폐사가 전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극히 제한적인 전개밖에 할 수 없게 된다. 몬텍스코리아의 이일우 과장은 "오프라인의 전자화폐 자판기 설치의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따라서 혼자할 수 있는 성질의 일은 절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가가야 할 문제"라며 진행상의 어려움을 밝혔다.

진정으로 전자화폐 자판기시장이 확대되려면 이러한 전체적인 마인드 고양과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의지가 없는 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제조분야에 있어선 자판기 사용문화의 한차원 선진화를 위해 전자화폐사와 적극적으로 제반 기술 개발 공유에 동참하고, 적극적인 자사 자판기 분야로의 적용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운영분야에 있어선 매장 증가와 소비자 편리성 향상을 위해 전자화폐결제시스템 장착에 적극 투자를 해야 한다.

앞으로 다량 생산되면 지폐식별기부착 비용 정도가



될 장차비용을 아까워할 것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파급 효과를 볼 줄 아는 성숙한 마인드 고양이 요구된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전자화폐 결제시스템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편한 결제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어찌 보면 번호를 눌러야 하는 모바일 결제시스템 보다도 훨씬 편리하다. 진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자판기 문화를 추구하는 산업계의 성숙한 마인드 고양이 전채되느냐 여부가 전자화폐자판기 시장 활성화의 최대 관건이다

### 전체 호환성 구축의 과제

전자화폐 자판기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각자의 전자화폐를 공히 사용할 수 있게 호환성을 구축해야 하는 일도 향후 과제 중의 하나이다.

현재처럼 전자화폐 자판기가 각기 추진이 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혼선을 느낌은 물론 폭발적인 이용을 확대도 기대하기 힘들다. A사의 전자화폐자판기에도 B사, C사 전자화폐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본격적인 이용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전자화폐시장에서 가장 앞서가는 부산의 경우를 보자. 이곳 전자화폐자판기의 도입은 하나로카드, 마이비카드가 각기 추진이 되다보니 진정한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시스템 추진으로 보기 힘들다. 진정으로 소비자를 고려하고 전자화폐 도입효과를 높이려 한다면 호환성을 구축해, 범용 사용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같은 호환성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는 자판기 제조, 운영분야의 자세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이용을 확대를 단기간 안에 크게 늘릴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전자화폐자판기 시장은 결코 혼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전체적 범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서로간 경쟁관계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를 구축 할 줄 하는 성숙한 의식고양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전자화폐사들의 의지만 있으면 현실점에서 있어도 범용 사용환경을 구축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선 모든 시스템이 연계되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당장 급진전되기는 힘들지만 기술적으로 파선 불가능하지 않다. 호환에 있어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모듈 기술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

하나로카드 온라인 자판기 개발업체인 에어코텍에서도 이미 각 전자화폐를 호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도 인식모듈만 교체하면 호환 환경이 구축이 될 수 있다.

에어코텍 송유택 이사는 “전자화폐자판기가 지불 수단만이 아니라 운영자쪽의 메리트를 주어야 발전이 가능하다”며, “운영주체가 다양하다 할지라도 상호이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범용환경을 구축되어야 전자화폐시장이 진정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같은 초장기 단계에서 범용환경 구축까지 가야하는 길은 참 멀어 보인다. 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진정으로 전자화폐가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현금결제를 대폭 대체할 수 있으려면 범용환경 상용화를 향한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전자화폐 자판기 시장은 이제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작지만 큰 행보를 내딛고 있는 중이다. ▣